

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농민
농부
농촌
대한민국

2020년 5월 2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이재식(044-201-2151), 사무관 류성훈(2157) / 제공일: 5월 27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「음식 덜어먹기」 캠페인 집중 추진

- 관계부처와 회의 개최(5.26.)하여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향 논의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농식품부는 개인 접시 사용하기 등 식사문화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

* 장소·일자: '20.5.26(화), 17:00~18:00, 세종정부청사

* 참석 : 농식품부(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), 식약처, 행안부, 문체부 등

- 외식분야 생활방역 지침 중 「음식 덜어먹기」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각 부처의 행정력, 사업 및 홍보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함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: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5.26.(화) 코로나19 대응 식사문화 개선 관계부처(식약처, 행안부, 문체부) 회의를 개최하고, '식사문화 개선 캠페인'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이번 회의에서는 식사문화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캠페인을 위해 각 부처의 행정력, 사업, 홍보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.

□ 감염병 예방, 실천의 용이성,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「개인 식기에 음식 덜어먹기」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온라인·모바일·방송·일간지 등 홍보하기로 뜻을 모았다.

○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개인 식기 사용 포스터를 외식업소에 공통으로 배포하는 등 지자체와 외식업소가 핵심과제를 원활히 추진토록 지원하기로 했으며,

○ 문체부는 정부 보유 홍보매체 및 수단을 지원하고, 행안부는 일선 지자체가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.

□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“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가 관련 생활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한다”고 강조하며, “여러 과제 중 음식 덜어먹기부터 생활 문화로 정착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